

베트남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나는 어학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베트남어를 공부를 한 후에 떠나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간단한 인사말과 긍정과 부정의 표시 등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외우고 기대하던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 본 적이 없던 나는 두려움과 설레는 기분을 동시에 느끼며 비행기 창가 자리에 착석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땅에서 하늘로 떠오를 때 나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준 파란 사다리 베트남 어학연수가 시작되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 후 나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과 습기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도와 습도에 익숙해져 불편했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다. 공항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현지인분과 한국에서 이민을 오서 현재 베트남에 살고 계신 담당자분들이 마중을 나와주셨고 담당자분께서 대절해 오신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베트남 1주차, 낯선 환경에 온 우리를 위해 첫날 현지 맛집을 데려가주셨는데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 지쳐있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다 풀리는 맛이였다. 정말 좋았던 것은 혹시나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자님께서 주소를 올려주시고 모두의 동의를 받은 후 식당을 예약해주신 것이였다. 덕분에 모두 맛있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2일차부터는 본격 베트남 한달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숙소와 학교의 거리가 좀 있어 그랩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번역기 앱을 써도 잘 못 알아들으셔서 학교 안에 위치한 한국어학당 교수님께서 오신 후 학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 볼 수 있었는데 동명대학교와 휴텍대학교의 연합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볼 수 있었고, 우리도 그에 보답할 만한 한국노래와 춤을 준비하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를 포함한 4명의 대학교 친구들은 뷰티케어학과 헤어전공이었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K-뷰티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하여 연예인들이 주로하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여 보여주는 쇼도 현지인 학생

모델들을 뽑아 스타일링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학생들은 매우 만족해했으며 휴텍대학교의 총장님께서도 기뻐해주심과 동시에 베트남 현지 기사에도 실려 뿌듯했다.

베트남 2주차, 우리 모두 베트남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색 음식 및 문화 탐방에 나섰다. 우선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쌀국수를 찾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였다. 주문 후 음식을 받아는데 한국과는 정말 다르게 생긴 쌀국수가 등장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본토의 전통의 향이 나에게 전해져 신기했다. 면도 내가 알던 쌀국수의 식감과 많이 달랐다. 국물도 닭을 장시간 고아내어 엄청나게 진했고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쌀국수들은 쌀국수가 아니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었다.

쌀국수를 다 먹고 한주의 피로와 뷰티 산업체 탐방을 위해 유명한 마사지샵을 방문했다. 그 곳은 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현지인들은 오지 않는 곳 같았다. 거기서 한국인 부부를 보았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보니 너무 반가워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덕분에 더 행복한 기분으로 마사지를 받고 나올 수 있었다.

베트남의 마사지샵은 대체적으로 청결했고 씻는 곳은 여러명이 한번에 사용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샤워만 할 수 있는 샤워장과 목욕탕을 합쳐놓은 느낌이 강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은 시간을 잘 지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반면 베트남은 90분 마사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70분 남짓의 서비스를 받았다. 베트남 마사지샵에서는 직접만든 푸딩이나 과일 따뜻한 차 등을 대기시간 또는 마사지를 다 받고 나왔을 때 준비해 놓는데 이것은 정말 좋았다. 한국 미용업계에도 도입된다면 분명 고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약 내가 베트남에서 마사지샵 창업을 한다면 한국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1인 샤워실과 탈의실, 고객이 예약한 시간을 지켜주는 것 등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을 하면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듣고, 보고하다보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고객의 니즈

즉, 감동이 곧 미용 창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창업주가 된다면 어떻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기초적인 틀이 잡히게 되었다.

베트남 3주차, 이제 본격적으로 어학연수에 온 목표인 사전에 조원들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논의해서 설계한 창업 아이템을 탐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팀원은 베트남 학생들과 같이 배정이되어 같이 작업을 해야했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베트남어 번역기와 영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우리 팀원은 아이템을 구체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매일 팀원들과 적으면 2시간, 많으면 6시간까지도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하였다.

우리 팀의 아이템은 카메라와 초인종, 문자 수신기를 합친 것이었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배달된 택배의 사진과 배달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선정한 계기는 배달과 택배가 일상화 된 우리나라에서 택배를 시켜놓고 집에 없을 때나, 아기 또는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늦은 시간 초인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제품이 있으면 구매했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소비자의 입장이되어 결정하고 선정하였다.

우리 팀원들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 어떤 원리로 문자수신이 이루어지고 사진이 찍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통신사와 협의를 해야하고 제품의 가격과 재질 등은 어떻게 측정하고, 값싸지만 질 좋은 재료를 찾을 것인지 등을 여러 논문을 더불어 인터넷, 책 등을 찾아보며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고, 휴텍대학교에서 4주차에 영어로 아이템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어, 영어번역 및 대본만들기, 대본 외우기 등을 하였다.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더 쉽고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여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발표를 할 예정이었기에 파트를 나눠 자기가 담당할 부분을 열심히 외우고 혹여나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들도 미리 생각하여 정리해 놓았다.

베트남 4주차, 드디어 기다리던 프레젠테이션 발표날이 다가왔고 베트남 총장님과 담당자님들 영어 선생님들과 다른 팀원들이 한 곳에 모여 발표를 하였고, 총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의 조언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발표는 끝났다. 이제 베트남에 있을 시간도 어느덧 3일도 안 남았고 열심히 한만큼 후회는 없었지만 정들었던 베트남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많이 섭섭했다.

그래서 휴텍대학교 홍보 겸 체험을 위해 대학교 축제에 갔고 가기전에 학교에서 대여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한복을 입고 있으니 신기했는지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요리체험을 해보라는 사람부터 체험 나온 학생들이 말을 걸며 자기 학교에 입학하라고 하거나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주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들었던 베트남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뒤로한 채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들 덕분에 사업 아이템을 떠올릴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와 차별화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파란 사다리를 통해 이런 해외 어학연수 경험을 해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것에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파란 사다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배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나는 파란 사다리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나의 자아를 정확하게 찾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으니,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 목적이 뚜렷한 학생뿐만 아니라 ‘내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

들도 꼭 신청해서 나처럼 삶의 방향, 목적, 자아를 찾는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파란 사다리를 통해 했던 많은 경험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나처럼 후배들이 직접 느껴보면 좋겠다.

-끝-



